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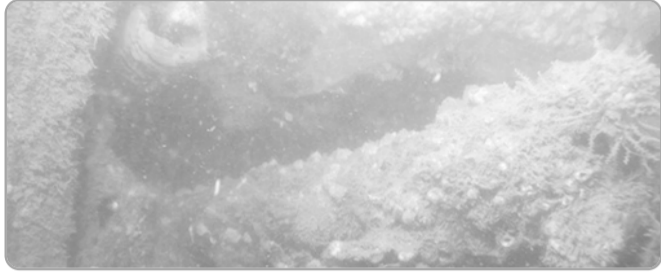




박근호의 바다이야기



▲ 오동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부잔교에 그물이 보입니다.



▲ 물에 빠진 부잔교를 근접 촬영한 모습입니다.

김혜진의 자연이야기

- 홍점알락나비 애벌레의 겨울 준비

겨울의 팥나무 낙엽과 같은 색의 너석들 두어번 월동(겨울잠?)중인 홍점알락나비의 모습을 소개했었습니다. 겨울이면 요너석들을 찾고 만난다는 것에 즐겁지만 했죠! 그런데, 요너석들은 어떻게 겨울 준비를 하는지가 궁금하기 시작했요! 아작은 팥나무 잎이 푸른 모습입니다. 곳곳에 단풍은 보이지만요, 찾고 찾고 찾아 겨우 1령의 애벌레를 찾았습니다. 초록의 온색을 테리고 왔습니다. 몇일전 온색은 2령으로 자랐습니다.(탈피)



에고 초록의 모습으로요! 언제 낙엽과 같은 색으로 변할지 궁금합니다. 2령의 모습으로 겨울을 나는데 말이죠, 오늘도 요너석은 열심히 먹고 먹고 먹기만 하네요~~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강연후기



지난 10월 23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여수진보연대가 공동주최한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민변 세월호진상규명특위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의 실상,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 세월호 참사의 10대 원인, 진상규명 과제와 대책으로 나눠 2시간 가량이 걸쳐 상세한 이야기를 풀어내었습니다. 규제는 압덕어리로 규정짓는 정부의 무제한적 규제완화로 인해 국내 연안여객선중 20년 이상이 2006년에 비해 2배가 늘었습니다. 또한 해상 조난사고도 2009년부터 전년 대비 2배로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파헤쳐 보면 파헤쳐 볼수록 이런 일은 세상에 또 없을지 싶습니다. 이 날 발표된 PPT자료는 자료집으로 만들어 환경연합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지역현안

학교무상급식은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천이다. 여수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라.

"여수시는 시민이 희망하는 공약인 동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의지와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대한 여수시의 의지는 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제 15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여수시장은 전면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시민들의 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를 '시행하겠다'가 아니라 '검토 중'이라고 답변해 실천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여수시의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30억이 추가되어 시비 71억 이면 가능한 것이다. 이 정도의 예산은 여수시 총 예산에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예산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지역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은 지난 선거에서 여수시민협이 공모한 시민희망공약 '친환경무상급식 고교까지 확대'가 채택되어 시민들의 요구임이 이미 증명된 바 있다.

학교무상급식은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천이다. 또한,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져 학생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인구증가 효과까지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수시는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수시 뿐 만이 아니라, 전남도의회와 전남도청은 초중학생처럼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시 25%, 도교육청 50%, 도 25%의 예산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24일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WCA, 전교조 여수초등/중등/사립지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성폭력상담소, 민주노총여수시지부, 통합진보당 여수시위원회,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산단민주노동자회

시선집중 "여수환경운동연합"국립공원 오동도 수중 속 방치 부잔교 철거 대책 질의하다.



▲바다에 빠진 부잔교

여수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위원회는 2014년 10월 19일경 한려해상 국립공원 오동도 수중 속을 조사하면서 부잔교 등으로 추정되는 방치폐기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폐기물은 길이는 약 25미터, 넓이는 10미터, 수심 5미터 정도에 가라앉아 있는데 페타이어와 계단이 있는 것으로 봐서 부잔교의 일종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4년 10월 2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한려해상 국립공원 오동도 수중 속에 부잔교가 방치되어 있기에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과 함께 조속한 폐기물 처리대책과 해양환경 관리 등 제발방지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1) 오동도 전면 수중에 부잔교로 추정되는 물체가 침몰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오동도 주변에 부잔교를 설치한

업체 및 인근 어촌계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 여수항만청은 오동도 앞바다에 부잔교가 빠진 이유에 대해 '2003년 9월 태풍 매미 내습시 부잔교로 추정되는 물체가 오동도 전면 수중에 침몰했다는 의견을 청취하여 현재 침몰되어 있는 부잔교와 유사한 부잔교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유실하고 새로운 부잔교를 다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업체에게 그 당시 유실했던 부잔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해 주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회신했습니다.

3) 여수항만청은 여수환경연합에 '향후 동 부잔교로 추정되는 물체의 설치(소유)업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업체에게 부잔교 제거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오동도 수중속 방치 폐기물 수거와 제발방치 대책 촉구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수고해주신 해양환경위원회 박근호 위원장님과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박근호 집행위원

여수시 행정기구 일부조례안 여수시의회 통과에 따른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 1. 정부의 행정기구 개편도 여야가 TF팀을 꾸려 정부안을 조율하는데 여수시장 행정철학이면 여수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시민들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가?
2. 여수시의회는 여수시장과 시 행정부의 단일한 행정행위에 대한 최후의 감시자이자 견제자로서, 상임위 중심으로 상설화된 토론과 시민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0월 여수시 행정기구 일부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여수시의회 의견제출에 대해 여수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철현 시장의 행정철학이 반영된 조직개편으로서 여수시의회에 조직개편 안전을 원안대로 상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10월31일 본회의에서 여수시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수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논평으로 밝힌다.

- 1) 여수시는 시장의 고유권한, 행정철학을 내세우기에 앞서 시민들이 제기하고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수용이 어렵다면 왜 그런지 설득력있게 설명하는 자세가 곧 시민소통이다.
- 주철현 여수시장은 '모든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행정 철학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행정철학이라도 시민들이 환경과 안전으로 인해 위협과 불안감을 느끼거나 불편함이 가중된다면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며, 우리는 그런 시장을 원한다.
여수시장이 행정철학을 갖고 추진하는 문제라면 더욱 일반통행이 아닌 시민사회 및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시민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현재 여수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조건적인 공장과 산단의 확장만이 만사가 아니라, 산단의 생태 숲 축소와 환경안전관련 규제완화가 가져올 폐단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환경부서의 존재 가치를 올바르게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
- 환경부서를 산단지원부서와 섞겠다는 것이 시장의 행정철학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르스렵기만 하다. 여수는 2012세계박람회를 통해 생태적인 해양환경, 저탄소에너지 도시를 지향하는 기후변화 대응 국제선도도시로서의 비전을 지역사회 속에서 합의하였다. 이는 국가석유화학산단의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고 대안적인 미래발전을 구상하는 지역사회 각 영역의 부단한 고민과 토론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에 반하는 정책을 시장 행정철학이라며 밀어붙이기한다면 여수는 과거로 역주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

-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고, 30년, 50년후에도 자연생태가 보존,확장되고, 저탄소기후보호를 위한 생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데 시민사회가 납득하기 힘든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행정철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시민여론을 인식해야 한다.

- 3) 여수시의회는 시장 부부의 해외출장, 시민위원회의 어설픈 운영,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불통, 해상케이불카 승인등 시행정부에 대한 최후의 감시자이자 견제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한다.
- 민선6기여수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되기 위해 시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토론과 논의, 의견수렴등을 통해 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다해야한다.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여수시장 부부가 함께 한 해외출장, 시민위원회의 형식적 운영과 무성의한 안전계획, 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시민의견 무시와 불통, 애초 건설단계에부터 치밀하지 않은 해상케이불카 승인등 언론과 시민사회의 부정적 여론은 바로 여수시의회가 올바르게 시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았기에 계속 문제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 텃밭인 호남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민선6기 시장과 시의회를 함께 장악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과거처럼 정당논리와 패거리 정치로 지역사회를 우롱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이번 여수시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시의회의 통과절차를 들여다보면 이런 우려가 더욱 커진다.
- 향후 호남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희망이 없다는 시민들의 정치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민선6기 시의회는 시정과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시의회와 시 행정부가 한통속이라는 불필요한 비난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4년 11월 4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YMCA,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WCA, 전교조 초등/중등/사립지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 울촌 두봉갯벌에 천연기념물 포착 노랑부리저어새 13마리 관찰



▲울촌 두봉갯벌에서 관찰된 노랑부리저어새

여수 울촌면 두봉갯벌에 천연기념물 제205호이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2급인 노랑부리저어새가 발견돼 눈길을 끈다.

노랑부리저어새는 저어새과에 속하는 새로 전체 길이 86cm가량이다. 몸 전체가 백색이나 여름에는 뒷머리의 땀가깃이 등황색을 띠게 되고 목에는 등황색의 띠가 나타난다. 부리는 검고 주걱처럼 생긴 부리 끝은 노랑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발견된 노랑부리저어새는 여수환경운동연합 해양환경위원회가 지난 10월 중순부터 31일까지 실시한 탐사결과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울촌 두봉갯벌은 이번에 발견된 노랑부리저어새 뿐만 아니라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대추귀고둥, 붉은발발톱게, 갯게 등 법적보호종이 다수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의 보고로 알려져 보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멸종위기종 등 법적보호종이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이 지역 환경을 미래 후손에게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며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4년 11월 03일 / 한해광 시민기자

회원이 전하는 민물고기 이야기

제 2장 "ㄴ"으로 시작하는 민물고기
우리나라 민물고기중에서 "ㄴ"으로 시작하는 고기는 납자루, 납자리, 누치, 눈동자개, 눈볼개 등 9여종이 있다. 이중 납자루종류는 민물조개의 몸속에 산란하므로 민물에 사는 조개가 없으면 번식을 할 수 없는 민물고기이며, 눈동자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어종으로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하천에 서식하고 있으나 하천 오염과 4대강 사업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갈수록 사라져만 간다.



사진으로 보는 '자연의 벗' - 담양 금성산성, 관방제림 기행 -



간단한 몸풀기 운동을 하고 호남의 3대산성 중 하나인 금성산성 길을 향해 걸어간다. 은은한 차광의 향일개? 쪽쪽뺨은 대나무의 기운일까? 향긋하고 선선한 숲길에서 나도 모르게 큰숨이 쉬어진다.



숲을 만들기에 앞섰는 나무에서 이름도 윤도나무, 빨간 열매가 거친 습소리 마저 삼키게 한다. 각자 지른 듯한 걸벽 위에 성곽을 쌓아 난공불락의 요새화를 이루고 있는 금성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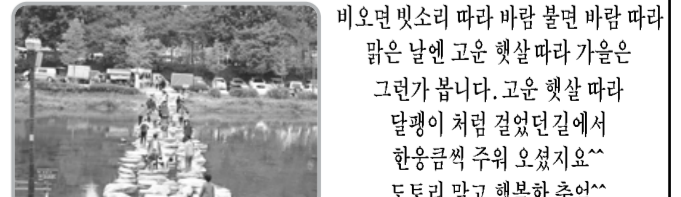
충용문과 남문인 보국문에서 바라보는 담양들판에는 비닐하우스가물결처럼 너울거렸다. 무욕의 삶터 등자일은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슬픔, 불행도 한 생각 돌이키면 행복해진다고 서로 삼키며 그나마도 행복해진다고 들려준다.



사극에서 등장하는 사약의 재료가 되는 독성식물로 유명한 천남성 열매. 부부간의 금슬이나 남남간의 애똥 한 사랑은 상징한다는 사랑나무 열매, 서로 다른 물푸레나무와 팽나무가 서로 감싸고 있다.



국민TV미디어협동조합원들도 함께 했다. '관청에서 조성한 독에 심은 나무'라는 뜻의 관방제림. 이 나무는 300년도 더 된 듯하다.



비오면 밧소리 따라 바람 불면 바람 따라 맑은 날엔 고운 햇살따라 가을은 그런가 봅니다. 고운 햇살따라 달빛이 처럼 걸었던길에서 한음금씩 주워 오셨지요? 도토리 말고 행복찬 추억~

"자연의 벗" 11월 나들이는 11월 15일(토) - 영암월출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또 어떤 선물을 줄까요?~